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
경제관계장관회의 겸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
25-6-3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

2025. 2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(요약)

I 추진배경

-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‘10년, 이하 전통주법) 후,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
 - 최근에는 혼술·홈술 문화,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·유통환경 변화로 젊은(MZ)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
- 그러나, 과거 주류에 대한 인식(세원관리, 규제대상 등), 쌀 사용 제한(‘66, 식량부족) 등의 영향으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성장기반은 부족
 - (제도) 신규진입 및 품질향상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
 - (생산) 전문성과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미흡해 업계 역량 부족
 - (내수)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서의 활용과 민·관의 수요 한계
 - (수출)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입점 지원 불완전

⇒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·유통 트렌드 등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,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

II 추진방향

- 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(名酒)산업으로 육성
 - ① (제도)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
 - ② (생산)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
 - ③ (내수)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민·관 수요 창출 확대
 - ④ (수출)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입점 지원 강화

Ⅲ

비전 및 전략

비전

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

목표

- ◆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(名酒) 산업으로 육성
 - (부가가치 확대) 전통주류 매출액(출고액) : ('23) 1.3 → ('27) 2조원
 - (해외시장 확대) 전통주류 해외시장(수출액) : ('23) 24 → ('27) 50백만불
 - (쌀소비량 확대) 전통주류 쌀 소비량 : ('22) 1.9 → ('27) 2.7만톤

중점 추진 전략

[1. 제도] 명주 육성 기반 조성	▷ 신규진입 지원 및 강소 업체 육성 • 소규모 면허 범위 확대, 주세 경감 혜택 강화 ▷ 다양한 농산물 활용해 산업 저변확대 • 전통주 규제 완화, 소주 주종 세분화
[2. 생산] 업계 역량 강화	▷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 •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, 맞춤형 컨설팅 지원 ▷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• 전통주 전용자금 운용, 교육기관의 질적 개선
[3. 내수] 국내 판로 확대 지원	▷ 전통주를 지역 관광콘텐츠로 육성 • 지역 문화행사 연계 홍보, 전통주 미식벨트 신설 ▷ 민·관의 전통주 수요 창출 • 온·오프라인 판로 확대, 공공기관 구매 여건 개선
[4. 수출] 해외시장 개척 지원	▷ 관계부처 협업 강화 • 재외공관 연계 홍보, 외교관 대상 전통주 교육 ▷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지원 •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, 수출협의회 운영

추진 기반

- ◆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◆ 제도 정착 및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IV 추진방안

1.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

□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고 강소업체로 육성

- **(소규모)** 증류주 창업 활성화 위해 소규모 면허 확대('25, 주류면허령 개정)
* (現) 발효주류(탁약청주, 맥주, 과실주)만 허용 → (改) 소주, 브랜디, 위스키 추가(8개 주종 허용)
- **(주세)**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 강화('25, 주세령 개정)
* 감면 요건을 현행 比 2배 완화하고, 기존 감면 外 일정 비율(30%)을 추가 감면

□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

- **(전통주)**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토록 지역특산주(민속주) 규제 완화('25, 전통주법 개정)
* (現) 주원료(상위 3개 원료) 지역농산물 100% 사용 → (改) 지역농산물 ^{예시}95%이상 사용
- **(대표주종)**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방안 검토('25)

2.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

□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

- **(연구개발)** 제품 품질향상 및 관리를 위한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('25~)
* 원료별 양조적성평가('25, 15종), 양조용 미생물 국산화(150주), 품질 DB 구축('26, 350개) 등
- **(창업지원)** 실무 지식 습득 및 업계 조기정착을 위해 (예비)창업자 대상 현장 방문·진단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(15개소) 지원('25)

□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

- **(전용자금)** 전통주 전용펀드(101억원) 및 농식품일반펀드(40억↑)를 활용하여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 지원('25)
- **(교육기관)**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'창업지원센터'(3개소 내외) 지정('25)

3.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민·관 수요 창출 확대

□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지역 명물로 육성

- **(문화행사)** 국내관광 박람회,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·홍보 추진('25, 문체부·지자체·협회 등 협업)
- **(관광자원)** 지역 미식자원 연계한 전통주 미식벨트(1개) 개발·발굴('25), 지역 양조장의 관광자원화 강화를 위한 '찾아가는 양조장' 내실화('26)

□ 민·관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접촉기회 강화

- **(민간)** 우리술 품평회(18점) 등으로 우수 제품 발굴하고, 판로개척 위해 대축제(11월), 바이어 상담회, 온·오프라인 기획전 등 수시 개최('25)
- **(공공)** 공공기관의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('25, 기재부·조달청 협업)
*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 예외로 인정,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 등

4.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입점 지원 강화

□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 협업 강화

- **(재외공관)** 주요 행사(3개 공관)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, 전통주 홍보 기획·자문, 전문인력 및 시음주 등을 지원('25)
- **(외교관)** 정규 교육과정에 전통주 및 한식 페어링 교육 추가('25, 외교부)

□ 전통주의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

- **(공항)**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·판매를 위해 가점부여,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* 입점 우대('25, 중기부)
*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설치·운영('24년 3개소 → '25년 6개소)
- **(협의회)** 전통주 수출업체(75개 社) 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, 공동마케팅 예산(최대 300백만원) 지원('25)
- **(홍보)** K-Food 동반 수출을 위한 '건배주 가이드북' 제작·배포('25)
* 한식 페어링 등 정보를 포함해 영문 등 4개 국어로 재외공관 등에 배포

참고

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일정	소관부처
1. [제도] 명주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		
[1] 신규진입 지원 및 강소 업체 육성		
○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범위 확대	'25.上	기재부·국세청
○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	'25.上	기재부·국세청
[2] 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		
○ 전통주 원료조달 규제 완화	'25.下	농식품부
○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검토	'25.下	농식품부·기재부
○ 주류의 주요 정보 표시기준제 도입 검토	'26.~	농식품부·식약처
2. [생산] 업계 역량 강화		
[1]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		
○ 명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강화	'25.下	농식품부·농진청
○ 양조장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	'25.下	농식품부
[2]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		
○ 전통주 전용자금 운용	'25.下	농식품부
○ 전통주 교육기관 운영 강화	'25.上	농식품부
3. [내수] 국내 판로 확대 지원		
[1] 전통주를 지역 관광콘텐츠로 육성		
○ 지역 문화행사 연계 홍보	'25.下	농식품부·문체부 등
○ 전통주 미식벨트 신설 및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내실화	'26.下	농식품부
[2] 민·관의 전통주 수요 창출		
○ 전통주 발굴 및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	'25.下	농식품부
○ 공공기관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	'25.下	농식품부·기재부·조달청
4. [수출] 해외시장 개척 지원		
[1] 관계부처 협업 강화		
○ 재외공관 연계 전통주 홍보	'25.下	농식품부·외교부
○ 외교관 대상 전통주 교육 신설	'25.下	농식품부·외교부
[2] 전통주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		
○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전통주 특별매대 설치	'25.下	중기부
○ 수출협의회 운영 및 공동마케팅 지원	'25.下	농식품부
[정책 추진기반]		
[1]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		
○ 전통주법상 구체적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	'25.下	농식품부, 국세청
[2] 제도 정착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		
○ 협의체, 정보포털(더술닷컴 누리집)등 활용 정책 홍보	계속	농식품부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주류산업 현황('23년 기준)	2
III. 정책 현황 및 문제점	3
IV. 전통주 산업 활성화 비전 및 전략	5
V. 세부 추진방안	6
VI. 정책 추진기반	10
[참고] 과제별 추진 일정	11

I. 추진배경

-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0년, 이하 전통주법) 이후,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*하고 성과를 창출

* 전통주 시장규모(억원): ('10) 433 → ('20) 627 → ('21) 941 → ('22) 1,629 → ('23) 1,475

- 제조면허 요건 완화, 주세감면, 통신판매 허용 등 제조 판매 규제 완화 및 R&D, 인력양성, 소비·유통 활성화 등 각종 지원 추진
- 최근에는 혼술·홈술 문화,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·유통환경 변화로 젊은(MZ)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

* "2030세대, 독특한 전통주 고른다"(10.7. 헤럴드경제), "화려함으로 MZ 잡았다. 전통주 온라인서 잘 팔리네"(7.18. 매일경제), 혼술홈술 등은 롱런 트렌드('22년 소비자 실태조사)

- 그러나, 전통주 산업 외연 확장 및 질적 성장 등을 통해 국내외 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성장 기반은 여전히 부족

- 전통주법은 '전통주'(민속주, 지역특산주)를 경직적으로 규정하여, 국내외 소비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한계
- 그간 '주세법' 중심의 정책으로 산업 활성화·진흥을 위한 지원에 한계
- 과거 식량부족으로 인한 주류 제조 시 쌀 사용 제한('66) 등의 영향으로 희석식 소주 등 주류 제조에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 사용
- * (쌀 1kg당) 증류식 약 2.3kg, 백설기 약1.3kg, 탁주 약 6ℓ, 증류식 소주 약 1ℓ 생산
- 전통주 등 주류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홍보도 여전히 불충분

⇒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·유통 트렌드 등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,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

Ⅱ. 주류산업 현황('23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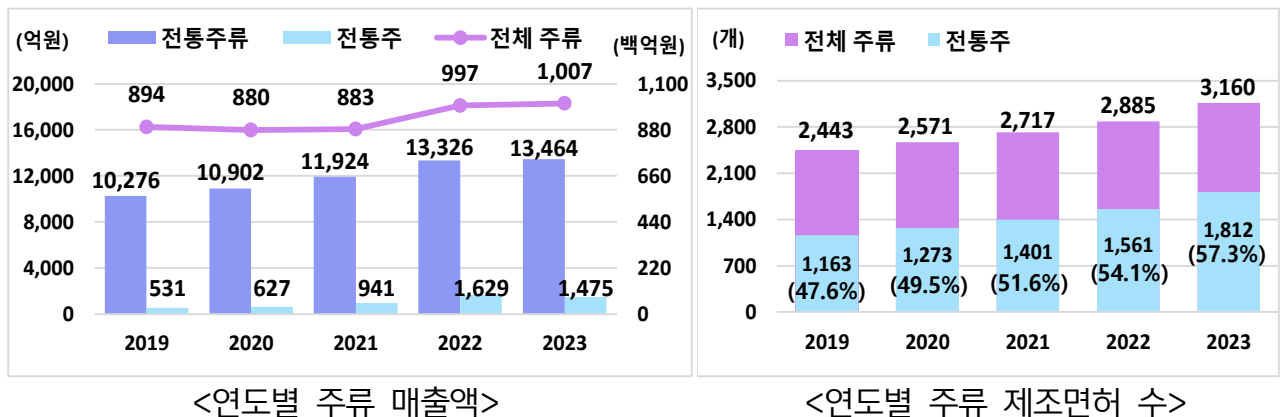
- **(출고액)**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, 법적 전통주(민속주+지역특산주)는 1,475억원(전체의 1.47%)

* 주종별 출고액(억원): 맥주(41,866), 희석식소주(39,938), 탁주(5,226), 과실주(1,378), 증류식소주(1,330)

- 탁주, 증류식 소주 등 8개 전통주 가능 주종은 약 1.3조원(전체의 13.4%)

- **(제조면허)** 전체 주류면허(3,160개) 중 전통주가 57.3%(1,812) 차지

- 전통주 혜택(주세 감면, 온라인 판매 등)이 있어, 민속주 比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제조면허 수 증가(1,766개, 97.5%)



- **(산업구조)**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87.1%,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장은 64.1%로 영세('22년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)

* 식료품제조업 중기업(소기업) 기준: 연매출 1,000억원(120억원) 이하 등

- 전통주 업체의 88.0%가 매출액 10억원 미만,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장은 66.1%이고, 평균 종사자 수는 3.68명(전체 주류산업은 6.27명)

* 식료품제조업 소상공인 기준: 연매출 120억원 이하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등

- **(수출입)** 국내 주류 수출액은 365백만달러, 수입액 1,501백만달러로, 수입액이 수출액의 4.1배 수준

- 탁주 등 전통주류 수출액은 24백만 달러, '19년 이후 38.5% 성장

* 전통주류 수출액: ('19) 1,736만불 → ('20) 1,822 → ('21) 2,352 → ('22) 2,466 → ('23) 2,404

Ⅲ. 정책 현황 및 문제점

1 [제도] 명주 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

- **(진입·성장)** 산업 육성을 위한 면허·주세 체계의 뒷받침 부족
 - **(소규모 면허)** 소규모 제조면허는 발효주류만 허용하고 있어서, 증류주류의 소규모 창업에 다소 제약으로 작용
 - **(주세)** 전통주의 경감요건 및 규모는 '08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완화 필요성 제기
 - * (現) 발효(증류)주류: 직전연도 500(250)kl 이하 생산업체 대상으로 주세감면
- **(저변확대)**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품질향상이 제한적
 - **(전통주)** 주원료(중량 比 상위 3개 원료)에 해당되면 극소량이라도 원료 조달 지역 제한 적용되어 신제품 개발 등 사업 확장에 애로
 - **(대표주종)** 국가대표 프리미엄 전통주가 부재해 육성기반 마련 필요
 - **(표시기준)** 제도 미비로 제품 외관만으로 원료 산지, 첨가물 등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

2 [생산] 업계 역량 부족

- **(전문성)** 업계의 하드웨어(기술적)·소프트웨어(인적) 측면의 전문성 부족
 - **(연구개발)** 영세 업계의 자본·인력 한계로 자체적 기술개발 미미
 - **(창업지원)** 기술·디자인 등 개선을 위한 실무적 조언 부재
- **(성장환경)** 업계 성장을 지원할 물적·인적 인프라 미흡
 - **(자금)** 발효·숙성 등 제품생산 후 수익 발생까지 기간 소요 및 시설 설비 비용의 부담은 신규진입과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
 - **(교육기관)**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의 자발적 교육 개선 유인 강화 필요

3 (내수) 국내 판로 확대 지원강화 필요

- ☐ **(지역관광)** 지역별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서의 활용 미흡
 - **(문화행사)** 안동소주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역 대표 전통주 홍보가 부족해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상품 육성에 한계
 - **(관광자원)** 지역별 미식자원 등 식문화와 연계한 전통주 홍보 필요
- ☐ **(수요)** 민·관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접촉 기회 확대 필요
 - **(민간)** 품평회·상담회 등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사업은 있으나, 온라인 판매 등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
 - * 지원 정책 기여도(중복응답): 우리술 대축제(55.4%), 유통판로 확대지원(55.3%), 우리술 품평회(50.4%) 順('22년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)
 - **(공공)** 공공기관은 선물용이라도 법인카드(클린카드) 사용 구매가 제한되고, 다양한 제품 선택에 한계가 있는 등 소비 여건이 열악

4 (수출) 해외시장 개척 지원 불완전

- ☐ **(협업)**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부족
 - **(재외공관)** 국경일 등 주요 행사가 전통주 해외 홍보 기회로 대두
 - **(외교관)** 해외 파견 공무원 대상 전통주 교육으로 대외 홍보 강화 필요
- ☐ **(해외판로)** 전통주의 해외 판매처 및 인지도 한계
 - **(공항)** 주요 공항 면세점에 전통주 매대는 있으나, 그 규모는 제한적
 - **(협의회)** 수출업체 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수출협의회 운영 필요
 - **(홍보)** 영문 자료가 미흡해, 외국인의 전통주 정보 접근에 애로

IV. 전통주 산업 활성화 비전 및 전략

비전

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

목표

- ♦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(名酒) 산업으로 육성
 - (부가가치 확대) 전통주류 매출액(출고액) : ('23) 1.3 → ('27) 2조원
 - (해외시장 확대) 전통주류 해외시장(수출액) : ('23) 24 → ('27) 50백만불
 - (쌀소비량 확대) 전통주류 쌀 소비량 : ('22) 1.9 → ('27) 2.7만톤

중점 추진 전략

[1. 제도] 명주 육성 기반 조성	▷ 신규진입 지원 및 강소 업체 육성 • 소규모 면허 범위 확대, 주세 경감 혜택 강화 ▷ 다양한 농산물 활용해 산업 저변확대 • 전통주 규제 완화, 소주 주종 세분화
[2. 생산] 업계 역량 강화	▷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 •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, 맞춤형 컨설팅 지원 ▷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• 전통주 전용자금 운용, 교육기관의 질적 개선
[3. 내수] 국내 판로 확대 지원	▷ 전통주를 지역 관광콘텐츠로 육성 • 지역 문화행사 연계 홍보, 전통주 미식벨트 신설 ▷ 민·관의 전통주 수요 창출 • 온·오프라인 판로 확대, 공공기관 구매 여건 개선
[4. 수출] 해외시장 개척 지원	▷ 관계부처 협업 강화 • 재외공관 연계 홍보, 외교관 대상 전통주 교육 ▷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지원 •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, 수출협의회 운영

추진 기반

- ♦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♦ 제도 정착 및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V. 세부 추진방안

1 (제도) 명주 육성 기반 조성

- ◆ 업계의 진입·성장을 지원하고, 저변확대를 위한 법·제도적 인프라 마련

- **(진입·성장)**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고 강소 업체로 육성
 - **(소규모 면허)** 증류주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('25, 주류면허령 개정)
 - * (現) 발효주류(탁·약·청주, 맥주, 과일주)만 허용 → (改) 증류식소주, 브랜디, 위스키 추가(8개 주종)
 - **(주세)**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 혜택 확대('25, 주세령 개정)
 - * (요건) (現) 발효(증류)주류 전년 생산량 500(250)kl 이하 → (改) 1,000(500)kl 이하
(감면) (現) 발효(증류)주류 금년 생산량 200(100)kl 이하분은 주세 50% 경감
→ (改) 200~400(100~200)kl 30% 경감구간 추가 신설
- **(저변확대)**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
 - **(전통주)**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토록 지역특산주(민속주) 규제 완화('25, 전통주법 개정)
 - * (現) 상위 3개 원료는 지역농산물 100% 사용 → (改) 제품 중량비 기준 예시 95% 이상 사용
 - ** 지역 쌀 99%+타지역 장미 0.1%인 경우: (現) 제조 不可 → (改) 제조 可
 - **(대표주종)**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 추진('25)
 - * 업계·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관련 법령(전통주산업법 및 주세법 등) 개정 검토
 - **(표시기준)**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 등에 주류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기준제 도입 검토('26~)
 - * (예시) 대표적 전통주 주종으로 인식되는 탁주는 원료 산지 및 첨가물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신설해 해당 특정 명칭을 주표시면에 적시 등

- ◆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

□ (전문성) 하드웨어(기술적)·소프트웨어(인적) 측면의 전문성 제고

- (연구개발) 제품 품질향상 및 관리를 위한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('25)
 -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쌀 등 원료별 양조적성 평가('27년 20종) 및 양조용 토착 미생물 자원화*(국산화) 추진
 - * ('23) 132주, 10,053건 → ('24) 141, 10,746 → ('25) 150, 12,000
 -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제품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으로 품질 DB* 구축 및 향미 평가 핵심지표 개발
 - * ('11) 25개 제품 → ('15) 49 → ('18) 255 → ('24) 312 → ('26) 350
- (창업지원) 실무 지식 습득 및 업계 조기정착을 위해 (예비)창업자 대상 현장 방문·진단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(15개소) 지원('25)
 - * 분야 예시: 양조기술·품질개선, 면허·세무·법률, 제품 패키징 및 매장 디자인 등

□ (성장환경)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해 업계의 지속적 성장 지원

- (전용자금) 전통주 전용펀드(101억원) 및 농식품일반펀드*(40억↑)를 활용하여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 지원('25)
 - * 농식품일반펀드 내 전통주 투자 의무 부여(40억원 이상),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무 투자액 초과분의 1% 인센티브 지급 검토
- (교육기관) 업계에 우수인력 보급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개선 추진('25)
 - 창업 커리큘럼 수립 및 이행 결과를 평가*해 우수 기관(3개소 내외)을 '창업지원센터'로 병행 지정하고 교육비를 차등 지원
 - * (기준 예시) 창업 관련 교육, 컨설팅, 산학 기관 연계 및 타 기관 지원 프로그램 실적 등
 - '가칭'졸업작품 전통주 경진대회', 워크숍 등 인센티브 부여 병행

- ◆ 전통주와 지역관광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민·관의 전통주 수요를 창출

□ (지역관광)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관광콘텐츠로 육성

- (문화행사) 국내관광 박람회 및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·홍보 추진('25, 문체부·지자체·협회 등 협업)
- (관광자원) 지역 전통주·식문화 페어링 등 지역별 미식자원 활용한 전통주 미식벨트(1개) 발굴·개발해 지역관광·체험 활성화('25)
 - 지역 양조장의 문화예술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체험·관광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'찾아가는 양조장' 사업 내실화*('26)

* (現) 신규선정에 예산지원 수반, 선정 유효기간 無 → (改) 예산지원 별도 선발, 유효기간 도입 등

□ (수요) 민·관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접촉 기회 확대

- (민간)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,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 추진('25)
 - 우리술 품평회(7월, 18점) 수상작 카탈로그 제작, 바이어·언론 초청 시음회 개최, 보틀숍·대형마트 등 입점 지원
 -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강점 활용을 위해 네이버, 카카오 등 주요 쇼핑몰에 전통주 할인 기획전 추진
- (공공) 공공기관 수요 확대를 위해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
 - 법인카드(클린카드) 사용해 구매가 원활하도록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의 예외로 인정('25,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개정)
 - 선물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 전통주 등록 확대('25, 조달청 협업)

* 추천 대상(안): '찾아가는 양조장' 제품, 지자체 품평회 수상작 등

- ◆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,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

□ (협업) 전통주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와의 협업 강화

- (재외공관) 국경일 등 주요 행사(3개 공관)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, 전통주 홍보 기획·자문, 전문인력·시음주 등을 지원('25)
- (외교관) 주재지에서 전통주 및 한식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 수행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전통주 및 한식 페어링 교육 추가('25, 외교부)
 - * (신규자) 전통주 갤러리, 한식문화공간 이음 등 전통주 한식 체험형 현장학습 (공관장·재외공관 발령자) 전통주 및 한식 페어링 과목 도입해 전문성 제고

□ (해외판로) 전통주의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

- (공항)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·판매를 위해 가점부여,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* 입점 우대('25, 중기부)
 - *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설치·운영('24년 3개소 → '25년 6개소)
- (협의회) 전통주 수출업체(75개 社) 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, 공동마케팅을 위한 예산* 지원('25)
 - * 전년도 사업 결과 등 평가를 통해, 최대 3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- (홍보) K-Food와 동반 수출을 위해 한식 페어링 정보를 추가한 '대한민국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' 제작·배포('25)
 - * 국문, 영문, 일문, 중문으로 제작해 재외공관 등에 배포해 우수 전통주 홍보

※ 건배주 가이드북 예시

- ▶ 지역별·테마별 전통주(세계 주류품평회 수상작 등) 리스트를 어울리는 한식 등 페어링 정보와 함께 수록
- ▶ 현지의 주류 트렌드를 반영한 국가별 맞춤형 추천 가이드북 기획, 건배주의 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 바이어 알선 등 추진



VI. 정책 추진기반

□ (현황파악)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전통주 산업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, 면허정보 등 구체적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('25, 전통주법 개정)

※ (현행) 전통주산업법 제9조 제1항

-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...(중략)...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※ (입법례)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...(중략)... 다음 각 목의 정보: 국세청장 가. 상호,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.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. 개업일·휴업일 및 폐업일 ...(후략)...

□ (정책홍보) 제도 정착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(계속)

- 전통주 정보포털(더술닷컴 누리집)을 통해 사업개요·추진 일정 및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해 사업 인지도 제고
 - 온라인 SNS 공유 등을 통한 확산이 원활한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강화해, 젊은(MZ) 세대 중심으로 정책홍보의 전파력 제고
 - 전통주 교육기관·술 품질인증 등 정보제공 메뉴 신설
-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천을 통한 민간의 정책사업 참여 지원
 - * 정책 알림 서비스 신청 시, 전통주 정책 신청 기간에 SMS 등으로 신청 등을 안내해 민간의 정책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
- 전통주 협의체, 지자체, 농업기술원 등 전통주 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

참고

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일정	소관부처
1. [제도] 명주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		
[1] 신규진입 지원 및 강소 업체 육성		
○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범위 확대	'25.上	기재부·국세청
○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	'25.上	기재부·국세청
[2] 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		
○ 전통주 원료조달 규제 완화	'25.下	농식품부
○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검토	'25.下	농식품부·기재부
○ 주류의 주요 정보 표시기준제 도입 검토	'26.~	농식품부·식약처
2. [생산] 업계 역량 강화		
[1]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		
○ 명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강화	'25.下	농식품부·농진청
○ 양조장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	'25.下	농식품부
[2] 물적·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		
○ 전통주 전용자금 운용	'25.下	농식품부
○ 전통주 교육기관 운영 강화	'25.上	농식품부
3. [내수] 국내 판로 확대 지원		
[1] 전통주를 지역 관광콘텐츠로 육성		
○ 지역 문화행사 연계 홍보	'25.下	농식품부·문체부 등
○ 전통주 미식벨트 신설 및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내실화	'26.下	농식품부
[2] 민·관의 전통주 수요 창출		
○ 전통주 발굴 및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	'25.下	농식품부
○ 공공기관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	'25.下	농식품부·기재부·조달청
4. [수출] 해외시장 개척 지원		
[1] 관계부처 협업 강화		
○ 재외공관 연계 전통주 홍보	'25.下	농식품부·외교부
○ 외교관 대상 전통주 교육 신설	'25.下	농식품부·외교부
[2] 전통주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		
○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전통주 특별매대 설치	'25.下	중기부
○ 수출협의회 운영 및 공동마케팅 지원	'25.下	농식품부
[정책 추진기반]		
[1]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		
○ 전통주법상 구체적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	'25.下	농식품부, 국세청
[2] 제도 정착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		
○ 협의체, 정보포털(더술닷컴 누리집)등 활용 정책 홍보	계속	농식품부